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1년 3월

선교편지 제 141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년과 다르게 거의 3개월 동안 매일 많은 비가 내려서, 제가 사는 지역을 관통하는 강이 범람하는 위기를 수차례 겪었습니다. 일기 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홍수 범람 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될 정도였습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지역을 향해 강한 태풍이 몰려 오고 있다는 소식에 긴장을 많이 했지만, 창문을 열어 낼 것 같은 강한 바람만 불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파장은 아직도 여전하여, 지루한 각종 검역과 예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모두 지친 모습입니다. 코로나 소식 보다 도리어 돼지 열병과 닭에 생긴 질병이 더 큰 고민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돼지 고기와 닭 고기를 구경하기가 힘들게 되었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더불어 비가 오랫동안 내렸던 까닭에 각종 채소의 수급도 전과 같지 않아서,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시 잠잠했던 지진이 1월과 2월에 또 다시 요동을 쳤습니다. 예배 시간 전후로 진도 6이 넘는 지진이 교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친교 시간에 발생한 지진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땅이 흔들림과 동시에 함께 따라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음산한 '지진 소리'(?는 교인 모두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찾는 교우도 있었고, 평지를 찾아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교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언제 또 다시 일어날 지 모르는 지진을 대비하여 예배 시간 중에도 모든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동안 계속된 각종 자연 재해가 지난 주부터 주춤하고 숨 고르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뜨거운 태양도 다시 떠 오르고, 요란한 새 소리도 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얼굴에서 근심이 아닌 활짝 핀 웃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지나는 이곳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날개로 덮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 57: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서 준수해야만 하는 각종 '뉴 노멀'을 교인들이 잊지 않도록 매주 예배 시간 광고를 통해 반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교인들로부터 난처한 요청을 받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예배당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의자를 배치했지만,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과 함께 앉기 위해 의자를 옮기게 해 달라고 저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체온을 재며 안내하는 교우를 통해서 예배당에 들어 오기 전 몸에 미열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며 저에게 체온을 다시 측정해 달라고 합니다. 15세 이하 학생이나 어린이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치 제가 모든 엄격한 규정을 만들고 교인들을 허가해 주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예배 이후 친교 시간에 불편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 차를 이용하여 예배를 돕는 찬양팀이 아팔라야 교회로 이동을 하는데, 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요란하게 웃으며 갈 때는 건강을 지켜 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일 예배에는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을 잘 지키지만, 수요 예배나 각종 모임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아무리 뉴 노멀을 강조해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를 풍선에 계속 바람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팔라야 예일 교회에 출석하는 '사미라 (Samira)' 부인의 믿음은 아주 특별합니다. 사미라 부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장학사역에 속한 큰 아들을 일반 대학이 아닌 신학 대학으로 보내어 목회자로 키우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큰 아들과 큰 딸 밑으로 터울이 10살이 넘는 2살과 3살 된 어린 자녀가 있는데, 뉴 노멀 규정상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며 거의 매주 간청을 합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을 막는 일이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식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꼭 지켜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마침내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사미라' 부인의 간청으로, 교회에 미리 공지를 하고 예배에 처음 참여하는 두 어린 자녀를 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어린 두 자녀를 안아보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기쁜 마음으로 두 자녀를 환영하고, 믿음으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사미라 부인의 가족 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두 자녀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사미라 부인의 믿음을 통해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삼 1:4)



이곳 선교지에서도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에서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사순절 (Lent)을 지나고 있습니다. '봄철' 이란 의미의 Lent(사순절) 기간 중에 부활을 가능케 한 '고난'과 '새 생명'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이 국교인 이곳은 개신교에 비하여 사순절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의 수요일에 종려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하고 다닙니다. 나라 전체가 카톨릭 교회의 달력에 따라 대강(림), 성탄, 사순, 부활과 같은 주요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사순절은 모든 절기의 중심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노아 홍수 기간이 40일이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가졌던 금식기도 기간이 40일이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지낸 기간이 40일이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기다린 기간이 40일이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순절을 지나며 디고스 예일교회는 매주 수요일 마다, 그리고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매주 금요일 마다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멀리서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닌, 성도 개개인이 십자가로 인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고 가까이 나아 가려고 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이루신 '새 생명'을 찾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전도지를 들고 주변 마을의 가정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인 모두가 전도를 받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참여하게 되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조를 나누어 각 집들을 방문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지를 주며 복음을 전할 때에 기꺼이 받는 가정도 있지만, 문전에서 박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회에서 전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썬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죄의 고백과 회개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위한 전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구별된 삶으로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여,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 52:7)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